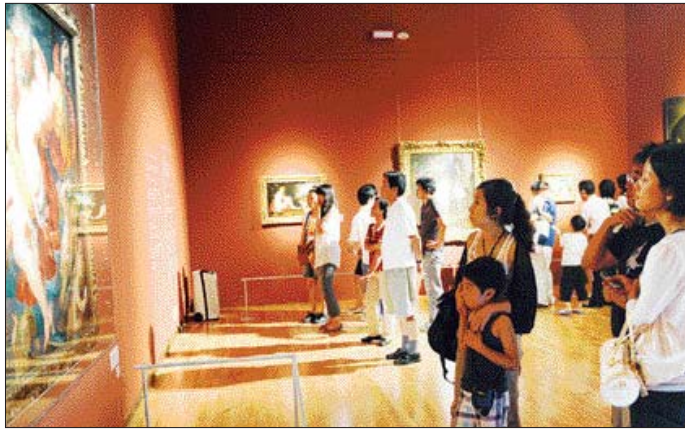


문화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시민강좌 '현대미술과 인문학'

“현대미술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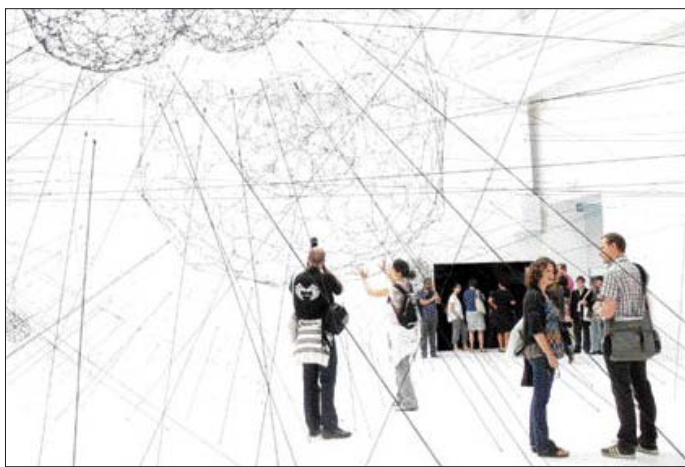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주최하는 '현대미술과 인문학'은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명품 현대미술강좌'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로 미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미술강좌를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립미술관 등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거나, 서너 차례 시민 강좌를 열었지만 '문화시민'을 양성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는 난해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이끌어내는 등 명실상부한 '미술아카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강사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19일 이번 강의의 스타트를 끊는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V.탈리아 교수를 비롯해 유코 하세가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현대미술과 인문학'은 난해한 현대미술에 해답을 제시하는 명품 미술 강좌이다. 사진 위에서부터 지난 2008년 열린 루벤스전과 광주비엔날레, 지난해 열린 베니스비엔날레와 상륙전 시민 미술 강좌 모습. (광주일보 자료)

■ 현대미술 강좌 (광주시립미술관 상륙전시관·15:00~17:00)

일정	강사	제목
2.19	V.탈리아	뉴욕속의 한국미술
3.19	이용우	예술의 인문학적 사고
4.16	김성희	중국 현대미술과 북경 파산즈 798지역 예술시장의 형성
5.14	홍성담	현대미술 저항과 자유에 관한 로망
6.18	홍가이	현대문명의 구성원리와 예술의 역할
7.16	이주현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명화에 나타난 리더십
8.20	김선정	미디어시티 서울에서 본 도시와 비엔날레의 관계
9.10	유코 하세가와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주변과 중심
10.15	심해련	이미지와 매체 그리고 디지털 매체 예술
11.19	정경화	화이트큐브의 종말과 포스트모던 미술관
12.17	배병우	'자연의 미란 무엇인가'

세계적 권위 국내·외 전문가들 강사 참여 한·미·중·일·동아시아 미술 흐름 한눈에

2010 상파울로 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등 해외 유명 전문가와 김선정 2005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등 국내 대표 기획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문화 강좌의 특징은 현대미술과 인문학의 관계를 고찰해 본다는 점이다. 폭넓은 인문학적 배경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종합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기획자, 평론가, 언어철학자, 매체철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먼저 오는 3월19일 광주비엔날레 이용우 상임이사장이 '예술의 인문학적 사고'를 주제로 예술과 인문학의 관계, 예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인문학적인 사고 등을 강의한다.

또 한국외대 홍가이(언어철학) 교수와 전북대 과학학과 심해련(매체철학) 교수가 각각 '현대 문명의 구성원리와 예술의 역할'(6월18일) '이미지와 매체 그리고 디지털 매체 예술'(10월15일)을 주제로 예술과 인문학의 관계에 대한 답문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이번 강좌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 등 현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다.

19일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V.탈리아 교수는 '뉴욕 속의 한국미술'을 주제로 현대 미술의 최전방, 미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지난해 뉴욕 맨해튼 첼시아트 뮤지엄에서 초대전을 열었던 광주 출신 서양화가 박소빈씨 등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작가들 중심으로 현대 미술의 다양한 전개를 소개한다.

또 홍익대 미술대학원 김성희 부교수가 새로운 국제 미술 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미술을 소개하는 '중국 현대미술과 북경 파산즈 798지역 예술시장의 형성'(4월16일)을 강의한다. 유코 하세가와와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주변과 중심'(9월10일)은 한·중·일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미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다.

유명 작가들의 생생한 '창작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국내 대표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관화가 홍성담씨가 '현대미술-저항과 자유에 관한 로망'(5월14일)을 주제로 억압과 독재에 항거했던 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한다.

또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씨는 '자연의 미란 무엇인가'(12월17일)를 주제로 안개 낀 소나무 숲 등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가의 일상을 소개한다.

이 밖에 미술평론가 이주현씨의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명화에 나타난 리더십'(7월1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김선정 교수의 '미디어시티 서울에서 본 도시와 비엔날레의 관계'(8월20일), 상륙전시관 장경화 분관장의 '화이트 큐브의 종말과 포스트 모던 미술관'(11월19일)도 빼놓을 수 없는 강의다.

이씨는 명화 속 리더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김 교수는 미디어를 활용한 현대미술의 흐름을 소개한다. 또 장 분관장은 포스트 모던 미술관의 태동과 역할 등을 강의한다.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립예술단체 2010 무대 힘찬 출발

국악관현악단 19일 '아리랑, 전라도 아리랑' 공연

교향악단 20일 드뷔시·레스피기 '바다와 소나무'



광주시립교향악단

2009년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잠시 휴지기를 거쳤던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올 들어 첫무대를 통해 힘찬 2010년의 출발을 알린다.



심인택 단장, 동수정씨, 주소연씨

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심인택)은 '아리랑, 전라도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다양하게 해석해 들려준다.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새해를 맞아 작곡가 백대웅씨에게 위촉한 '우리 아리랑'은 '애국가'와 각 지방의 아리랑 선율을 독주와 합주로 풀어낸 작품이다.

또 박위철씨가 작곡한 가야금협주곡 '아리랑',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의 선율이 어우러진 '남도 아리랑', 관현악과 합창곡이 만난 '아리아리' 등을 선사한다.

눈에 띄는 곡은 국악관현악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피아노협주곡 '아리랑'으로 광주에서 초연되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분야의 협연자들이 눈에 띈다. 가야금 연주자 최진, 피아니스트 동수정, 소리꾼 주소연·송은주씨 등이 함께 무대에 선다. 티켓가격 1만원, 5천원, 문의 062-512-5395.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은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바다와 소나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드뷔시와 레스피기의 음악을 들려준다.

첫무대를 여는 드뷔시의 '바다'는 변화무쌍한 바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여명에서 정오까지의 바다', '파도의 유희', '바람과 바다의 대화' 등 모두 3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품의 무곡과 아리아 조곡 3번'은 레스피기가 16~18세기 여러 작곡가가 류트(고대 현악기 중 하나로 피아노가 완성되기 전까지 반주 악기로 사용됐다)곡을 골라 모음곡으로 만든 작품이다.

피아노 곡은 역시 레스피기의 곡인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다. 레스피기가 1924년 작곡한 작품으로 로마 근처의 소나무숲을 묘사한 곡이다. '보르게세 별장의 소나무' 등 4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티켓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전 번역 30년내 마무리”

18일 DJ센터서 호남권 설명회

한국고전번역원(원장 박석무)이 최근 족히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되는 약 4천 책에 이르는 미번역 한문고전(주로 문집)을 30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1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번역원은 지금까지 주로 수도권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맡아왔던 고전 번역을 앞으로는 전국 각

지역의 번역 거점 연구소(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전국 4개 권역)를 선정해 지역 원로 한학자와 고전 관련 학과 등과 연계 번역하는 '번역별 거점 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을 시작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21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중형 연구소 6곳과 소형 연구소 4곳을 선정해 번역서 48책을 펴낼 계획이다.

한편, 번역원은 다음 달 초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4월 초에 대상 연구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호남권 사업설명회는 18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02-394-801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류장 원하면 일품속 패패리

Ilseon

아이엔리시아

출판사, 파로션, 새이디 각종 오일 및 행사 (500여 권)

소문(일류) : 21권, 12권, 24권, 32권, 40권
 대문(일류) : 12권, 16권, 18권

062-671-1199